



『정감록』에 대한 연구들

(지난호에 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최수정(崔守正)도 『정감록(鄭鑑錄)』에 대한 사회학적(社會學的) 고찰(考察) (1948)이라는 글에서 "... 이(李) 태조(太祖) 즉위 이듬해에는 할 일 없이 계룡산(雞籠山)에 가서 어름어름하다가 신탁(神勅)이나 받은 듯이 다시 한양(漢陽)에 와서 (도읍을) 정한 것이니, 정몽주(鄭夢周)에 대한 천추유한(千秋遺恨)은 마침내 정감비결(鄭鑑秘訣)로서 오백 년 동안이나 민간신앙(民間信仰)에 잠재하여 오다가 ..."라고 기록하여 『정감록』이 정몽주의 피살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호세이(細井 肇)는 『정감록비결집성(鄭鑑錄秘訣集成)』(1923)에서 「감결(鑑訣)의 저자를 정도전(鄭道傳)으로 보았다. 그는 조선(朝鮮) 건국의 기초를 닦았던 정도전이 이씨 혁명을 혐오한 고려 말의 유신(維新)으로서, 태조(太祖) 이성계에게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세자 방석(芳碩)을 옹립하여 정안군(靖安君, 이방원(李芳遠), 훗날의 태종(太宗))을 제거하고 왕권을 자기 수중에 넣고자 음모를 꾸몄지만 그만 발각되어 결국은 참살되었던 인물이라고 본다.

실제로 정도전은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물로 혁명가적 소질의 소유자였다. 그는 조선 개국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중국 한(漢)나라의 장량(張良)과 비유하여 "한고조가 장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고조를 이용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개국(開國)의 주역은 자신이라고 믿었다고 전한다.

결론에서 호세이는 『정감록』의 저작연대에 대해서는 근대 50년 - 60년 전의 정쟁(政爭)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고 기록하여 1860년대 이후의 저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현전하는 『정감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 근대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정감록』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며, 많은 부분이 훨씬 이전 시기에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이능화(李能和, 1869~1943)는 『조선기독교급외교사(朝鮮基督教及外交史)』 하편(1928)에서 선조(宣祖) 22년(1589)에 일어났던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의 역모 사건을 『정감록』의 기원으로 본다. 이능화는 "정여립은 뜻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던 사 람이었다. 그는 계룡산에 갔다가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적은 반시(反詩)를 지어서 자기의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장차 목자(木子, 이씨(李氏))가 망하고 전염(轉運, 정씨(鄭氏))가 일어난다는 노래를 지어서 퍼뜨렸으며, 스스로 그에 응하였다. 이것이 『정감록』에 대한 주장의 시초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능화는 정씨가 새로 일어난다는 간단한 언급 이외에 『정감록』의 저자가 정여립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능화는 "이망정흥(李亡鄭興)"이 이른바 『정감록』의 중요한 주제의 하



『정감록』(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또 이능화는 정조(正祖) 을사년(乙巳年, 1785)에 일어난 흥복영(洪福榮)의 옥사(獄事)와 순조(純祖) 신미년(辛未年, 1811)에 발생한 흥경래(洪景來)의 난(亂)에 『정감록(鄭鑑錄)』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나온다는 점을 밝혔으며, 철종(哲宗) 임술년(壬戌年, 1862)에 왕족(王族)이었던 이화전(李夏銓, 1842~1862)이 제주도에서 사사(賜死)된 후에 사람들 사이에 "그가 죽지 않고 남조선(南朝鮮)에 숨어 붉은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 떠돌았다."라고 기록하였다.

결국 이능화는 『정감록』의 저작연대를 『정감록』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나오는 정조(正祖) 9년(1785) 이후로 보고 있으며, 그 하한 연대를 철종 13년(1862)까지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탁월한 견해를 펼쳤다. 따라서 이능화는 지금까지 『정감록』의 저작연대를 상한선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오류를 시정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된다.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은 『조선상식문답』에서 이씨조선(李氏朝鮮)이 정씨(鄭氏)의 혁명을 만난다는 운명설은 선조조(宣祖朝, 재위 기간은 1567년~1607년) 이전부터 있었고, 선조(宣祖) 22년(1589)의 정여립(鄭汝立)의 역모(逆謀) 사건이 이를 배경으로 했으며, 특히 정조(正祖) 을사년(乙巳年, 1785)에 일어난 흥복영(洪福榮)의 옥사(獄事)에 『정감록』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정감록』은 선조조(宣祖朝)로부터 정조조(正祖朝)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미래국토(未來國土)의 희망적(希望的) 표상(表象)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남선은 선조 이전 시기에 정씨의 혁명설에 관한 이야기가 유포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태조 이성계가 계룡산에 도읍지를 정하려 했다는 설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설화의 발생 시점을 이야기의 내용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 누가 어떤 이야기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를 관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편 최수정은 조선의 고유 신앙의 신앙 대상인 용(龍)이라는 상징에서 『정감록』의 연원을 찾는다. 그는 "... 미래 사회의 참영주라는 소위 정도령(鄭道領, 도의적(道義的)이요, 양심적인 인물을 상징한 대통령(大統領)의 느낌이 있음)을 중심으



『유심결』, 『정감록』의 이본.

로 한 '용(龍)'의 전설 대신에 '진인남래설(真人南來說)'과 정감(鄭鑑)의 비결이 등장하는 것이, 이전 시대의 종래 비결이 신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에 비(比)하여 정감비결(鄭鑑秘訣)이 실증적(實證的)이라는 점이 더욱 흥미 있는 일이다. ..."라고 주장한다.

박종홍은 『한국사상사』 (1974)에서 『정감록』 등의 도참사상(圖讖思想)은 억눌린 민중의 '원(怨)'과 '망(望)'을 표출하는 미래상(未來像)의 현세적(現世的) 집약(集約)이기 때문에, 결국 시대 사회사적인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도참사상(圖讖思想)은 한국의 전통사상 가운데 민중예언사상(民衆豫言思想)으로서 점복(占卜), 예언(豫言), 풍수(風水), 오행(五行), 참위(讖緯)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서 분명하게 개념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도참사상의 역사는 이미 한국사상의 뿌리와 연결된 우리의 전통사상 가운데 전개된 하나의 문화현상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나아가 도참사상은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 특유의 민간신앙을 이루면서 한국 정신사의 기층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도참(圖讖)은 국가조업(國家祚業)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인간만사(人間萬事)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정험(徵驗)하는 예언과 비기류(秘記類)를 총칭한다.

양은용은 『정감록(鄭鑑錄) 신앙의 재조명』 (1990)에서 『정감록』이 조선 중기 이후에 유행했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조선왕조의 흥망이 중심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정감록』의 성립은 조선왕조의 성립(1392년) 이후부터 『정감록』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흥복영(洪福榮) 옥사(獄事, 1785년)에 이르는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성립 시기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규정을 시도했다.

어쨌든 현재까지 전하는 『정감록』의 판본은 약 50여 종에 이른다. 이는 『정감록』이 고경된 형태의 저작이 아니라 민중들에 의해 항상 새롭게 부각하고 해석될 수 있는 동적(動的)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려준다.

또한 양은용은 『정감록』은 조선 건국 후 이성계가 계룡산 아래 신도(新都)를 경영했던 예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이 민중에 의해 하나의 신앙으로 전승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신앙에 의해 『정감록』에 십승지(十勝地)의 하나로 계룡산이 열거되었고, 그 후 조선이 망한 다음 이곳에서 새로운 정씨(鄭氏) 왕조(王朝)가 세워질 것이라는 '정(鄭) 도령 출현의 참언(讖言)'이 등장하여 새로운 전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정감록』에는 피난 의식이 종교 교의에 의해 재해석되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예로 1919년 이후 계룡산 신도안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계룡산을 중심으로만 『정감록』을 이해했다는 한계를 보이며, 신도안으로의 인구 유입은 『정감록』을 만났던 사람들의 결과적인 행동이었다. 따라서 『정감록』의 저작 시기를 추론해 보는 일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초창결』, 『정감록』의 이본

김택 박사 / 신종욱 연구가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5회》

-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장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지난호에 이어서)

此大乘 차대승
이 대승(大乘)은

無有三歸分別之相 무유삼귀분별지상
삼귀의를 분별하는 상(相)이 없느니라.

所以者 何於佛性中 即有法僧 소이자 하여불성중 즉유법승
왜 그런가? 어찌 불성 가운데 법(法)과 승(僧)이 따로 있겠느냐.

爲欲化度聲聞凡夫故 위욕화도성문범부고
성문과 범부를 교화해서 제도하고자 함이다.

귀의할 곳이 있다면 오직 부처에 귀의

할 뿐이지 어찌 불성(佛性) 가운데에 법(法)이 따로 있고, 승(僧)이 따로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법과 승은 삼보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오직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我今廣爲衆生 顯揚如是 如來祕藏 아금광위중생 현양여시 여래비장
내가 이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여래의 비밀히 감춘 것을 드러내어

證知眞三歸依處 증지진삼귀의처
참된 삼귀의처를 증거하여 알리리라.

能信大涅槃經者 是人不遠遯三歸依處 능신대열반경자 시인불원구삼귀의처
능히 대열반경을 믿는 자는 멀리 아니하여 삼귀의처를 구하리라.

荷以故 於未來世 我身當即成就三寶 하이고 어미래세 아신당즉성취삼보
어떤 연고냐 하면 미래세(未來世)에 내가 마땅히 삼보(三寶)를 성취하여

衆生皆依 恭敬禮拜三尊 중생계의 공경예배삼존
중생이 다 의지하여 삼존(三尊)께 공경 예배할 것이니라

여래께서 비밀히 감춘 진실한 삼귀의 처는 무엇인가? 이 대열반경을 믿어야 삼귀의처를 안다고 했으니 열반경에 있는 말이 진실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



개운조사께서 도강산 심원사(洞藏山 深源寺)에서 지리산으로 가실 때 손가락으로 바위에 쓴 글씨 "洞(동천)"

미래세에 삼보를 성취한다고 하였으니 석가의 당대(當代)에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삼보가 있을 뿐 진실한 삼보가 없다는 말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세존 당시에는 불법승을 삼보라 하여 가르치다가 열반에 이르러서는 불법승 삼보를 거둬진 것이라 하고 미래세에 삼보를 성취한다 하였으니 미래세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이 나오셔야 삼보를 깨달아 증득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혹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반열반경(大槃熱樂經) 제8권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란다. 틀림이 없는 것이니 깊이 새겨 보시라.

《涅槃經卷八》
善男者 方等經者 猶如甘露 亦如毒藥 善男자 方등경자 猶여甘露 亦여毒藥 선남자 방등경자 유여감로 여여독약 선남자야, 방등경이라는 것은 마치 감로와 같으며 또한 독약과 같으니라.

爾時 世尊而說偈言 이시 세존이설계언
이 때에 세존께서 계승(偈頌)을 설하여 가로되,

或有腹甘露 傷命而早夭 후유복감로 상명이조요
혹은 다시 감로를 먹으면 상한 목숨이 일찍 생명력을 얻어 고와지며

或復腹甘露 壽命得長尊 후복복감로 수명득장존
혹 다시 감로를 먹으면 수명이 장존(長尊)함을 얻으리라.

無礙智甘露 所謂大乘典 무애지감로 所謂대승典
무애지감로 소위대승전 결점이 없는 지혜가 곧 감로인데 이른바 대승전(大乘典)이라 한다.

智者爲甘露 愚不知佛性 지자위감로 愚不知불성
지혜로운 자는 감로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불성을 알지 못한다.

依因於大乘 得至於涅槃 의인대승 득지어열반
대승에 의지한 인연으로 열반을 얻으리라.

無上甘露味 不生亦不死 무상감로미 불생역불사
위 없는 감로의 맛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迦葉汝今當 善分別三歸 가섭여금당 선분별삼귀
가섭야, 너는 이제 마땅히 삼귀의를 잘 분별하라.

如是三歸性 即是我之性 여시삼귀성 즉시자지성
이와 같은 삼귀의성은 곧 나의 성품이다.

부처님에게야 비로소 참다운 '나의 성품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我性有佛性 當知如是人 得人秘密藏 아성유불성 당지여시인 득인비밀장
나의 성품은 불성이니 마땅히 이와 같은 사람은 부처님의 비밀히 감춘 비밀장(秘密藏)을 얻으리라.

不法三寶性 無上第一尊 불법삼보성 무상제일존
불법의 삼보성(三寶性)은 위 없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위의 계승으로 보아서 감로를 내리는 분이 바로 부처요, 대승이요, 대승에 의지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감로를 내리는 분이랴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감로를 내리는 분이 곧 미륵부처님이라 했으니, 이는 미륵부처님이라야 참된 열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